

작은 꽃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주요 날짜:

- 3월 1 일
재의 수요일
- 3월 2 일
프라하의 성녀
아네스 동정 기념
- 3월 5 일
Soup Kitchen 봉사
- 3월 12 일 성경모임
- 3월 25 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 3월 26 일 월례회

다음쪽:

성경모임

1 월 월례회

이달의 작은 사람



내 가슴 속의 타우 십자가

전 정제 세레나, SFO

몇 해 전 친척 할머니를 뵙기 위해 샌 프란치스코의 한 양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형부와 함께 병원 문을 열고 들어 서는데 건드리면 꺼져버릴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짙은 화장을 하고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할머니께서 우리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 형부께서 다정한 미소로 다가가시어 귀에 대고 답을 하시니 그분께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은 듯 웃으셨다. 형부께 뭐라고 하셨냐고 여쭙었더니 "우리가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당신도 그렇다"고 하셨단다. "형부도, 주책이서!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지 주름을 쏘아 부은 듯한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 무슨 아름답기까지" 하냐고 눈을 흘기며 핀잔을 드렸다.

이모 할머니께서 계신 병실로 찾아가 그 분을 뵙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한국에 계실 때 그렇게도 굵고 고고하시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초라하게 마르고 늙어 버린 그 분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져서 반가워 어쩔 줄 몰라하시며 손을 잡아 주신 이모 할머니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로하시고 병드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살고 있어서 집안 어른을 뵙기 위해 양로 병원이라는 곳을 방문해 본 적도 없었고, 또 나이 드신 분의 짙은 화장도 거의 보질 못했던 나로서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였으니 벌써 9년 전의 일이다. 이모 할머니께서는 벌써 돌아가셨고 병원 입구에 앉아 계셨던 그 할머니도 물론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 때는 나에게는 50이라는, 60이라는 나이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그림 같은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젊음을 부러워 하셨던 그 할머니가 생각날 때가 있다.

도덕적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인이면 프란치스코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주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그 사랑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도미니코 신부님의 말씀에 반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된 지 몇 해가 지난 지금! 지금, 병원 앞의 그 할머니를 뵙게 된다면 두 팔 벌려 깊은 포옹과 함께 "당신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고 진정 어린 한 마디 드렸을 텐데.

그 때 그렇게 어색해 보이던 할머니에게 그 분의 지나온 삶의 무게만으로도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지금의 내가 프란치스코로서 충분히 성숙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타우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고 칼날 같은 자존심을 숨기고 있으며 무리를 해서라도 사고 싶은 사치품도 있다. 다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 15 장 9 절)고 하신 하느님 말씀이 뼈에 사무치고,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휠체어에 계셨던 내 마음속의 할머니께서는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저 도덕성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 때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내가 세상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은 그래도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주시는 삶의 지향을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ghwan
@yahoo.com

성경모임 - 민수기편

의욕있게 구약성경 공부를 시작하여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가쁜하게 마치고 지난 두 달 간 성경공부를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된 땅을 찾아 광야를 헤메며 툭툭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된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약성서 공부를 열심히 다 함께 마치고 자신있게 시작한 구약성경 공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흥미있게 마치고서 바야흐로 시작된 이 광야 -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다음달의 신명기 - 를 걷는, 누가 들으면 큰 일 날,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사건들과 딱딱한 율법규정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민수기를 접하면서, 잘 읽히지도 않고 의미도 잘 와 닿지 않는 오경의 마지막 세편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굶주림을 눈 앞에 두었을 때 내려 주신 맛있기만 하던 만나가 싫증나기 시작하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먹던 고기맛이 생각나 불평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머리를 맞대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늘어나고, 다들 것처럼 열심히 한 것 같지 않고, 내 눈에는 성경 모임에 참석하는 다른 형제들의 모습이 나와 같이 보인다. 많이 먹어 싫증난 만나와 아무런 맛이 없는 물이지만, 그분의 보살핌 없이는 광야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운명을 생각하며, 속는 셈 치고 신명기만 마치면 재미있어 진다는 성경모임 봉사자 레지나 누님의 격려를 떠올리면서,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규정들을 통해 현세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달간 찾아보리라 다시 작심해 본다.

권 요한 형제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선생과 학생들

2006 년 첫 월례회

새해 들어 첫 월례회가 지난달 22 일에 있었습니다. 작은 형제회의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총봉사자 모임에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이신 영적 보조자 Mark 수사님을 대신하여 양성 봉사자 오 바오로 형제가 지난번 강의에 이어 한국 천주교회사에 관한 두번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황 사영, 한국의 첫 순교자 윤 지충, 조선 교구의 설립 과정과 초대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에 관한 폭넓은 자료로 재미있는 야사를 곁들여 흥미진진하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전체 양성 후 각 반별로 양성이 진행되었고, 양성 후 친교와 의결 사항 및 공지 사항 발표, 그리고 성무일도로 모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달의 작은 사람은 김 재숙 베로니카 자매님입니다. 베로니카 율리안나 성녀(축일 7 월 10 일)가 본명성인이신 자매님은 1965 년 요한 형제님과 결혼하셔서 1 녀 2 남을 두고 계십니다. 잘 알고 지내던 대모가 되신 ‘행님’의 인도로 30 여년 전 영세를 받으셨고, 그 후 가족 모두 차례로 영세를 받으셨습니다. 1986 년 부산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 살고 계신 Vista 에 정착하셨습니다. 저희 형제회가 시작될 무렵 회합에 참석 당시 수사셨던 김 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처음 뵈었고, 형제회 참여 권유를 위한 가정방문때 받으신 지침서를 톺툼이 보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십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는 자매님은 이 곳 한인 천주교 공동체가 어려웠던 시기에 형제회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작음의 영성에 제일 마음이 끌린다는 자매님은 최근 양성 과제물로 ‘회개’를 공부하면서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닌 주님이심과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따르신 프란치스코 성인의 회개와 복음적 삶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모나지 않게 형제회를 함께 잘 꾸려가는 모든 형제들이 너무 ‘이쁘다고’ 하시면서 모두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달의 작은 사람

